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

이승희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국어사 전공
yiseunghee@smu.ac.kr

- I. 머리말
- II.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글편지 활용 현황
- III.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의 내용
- IV.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
- V. 상황에 따른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 VI. 한글편지에 나타난 전통적 수사법과 관용 표현
- VII. 맺음말

I. 머리말

전통적으로 국어사 연구는 국어의 내적 구조와 규칙,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국어생활사’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색이 시도되고 있다. ‘국어생활사’에서는 기존에 국어사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국어의 형태, 통사적 변화, 의미의 변화, 표기법의 변화 자체보다도 과거 언중들의 국어에 대한 인식이나 국어정책, 교육, 국어가 사용된 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에 주목한다. 이처럼 국어교육 분야에서 ‘국어생활사’라는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기존의 국어사 교육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으며, ‘국어사 교육’ 자체의 존재 의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에 방점을 둔 새로운 영역의 개척은 의미가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자칫 국어교육의 영역을 벗어나 중등 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기존의 국어사 교육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기존 교육 내용과 차별화된 새로운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 이전의 국어 교과서에서 국어사 교육을 위해 선정된 자료들은 충분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자료이지만, 지금과는 다른 ‘옛말’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어사 교육을 위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 한글편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편지는 비록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대화형식을 띠고 있어 당시의 실제 발화와 가까운 구어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이다. 또한 국어사 외적으로도 한글편지는 일반적인 역사교육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의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에는 국어의 역사를 다룬 단원에서 한글편지를 활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글편지 활용 상황을 살펴보고,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어사 교육 내용을 위해 한글편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세 가지 측면, 즉 첫째, 친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 의미의 변화, 둘째, 관계에 따른 칭자높임법

사용 양상의 차이, 셋째, 한글편지에 나타난 전통적 수사와 관용 표현으로 나누어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400여 년에 걸쳐 다양한 지역, 다양한 내용, 다양한 계층의 한글편지가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말 이후로 다수의 무덤편지가 발굴되어 이에 대한 해독과 역주 작업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어사 연구와 생활사 측면에서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지방의 가문들에서 대대로 전해져온 편지들을 해독, 역주하는 작업도 활발하며, 왕실의 한글편지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을 활용한다면 국어사 교육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글편지 활용 현황

7차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내용으로 국어사의 시대 구분, 국어의 계통, 문자 및 표기의 변화, 음운의 변화, 형태의 변화, 조어법의 변화, 어휘의 변화, 통사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국어의 역사를 다룬 단원에서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로 나누어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기법, 음운, 형태, 어휘, 통사의 변화를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개정 『국어』 교과서는 모두 16종인데, 이 중 8종의 교과서에서 중세국어 또는 근대국어의 자료로 한글편지를 이용하고 있다. 한글편지에 나타난 어휘와 현대국어의 어휘를 비교하여 어휘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종결어미의 변화, 높임법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근대국어 한글편지의 경우는 이전 중세국어 자료와 비교하여 음운이나 표기법, 문법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또한 한글편지가 쓰인 상황을 통해 당시의 문자생활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국어생활의 양상과 변화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 별로 수록된 한글편지와 이를 통한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글편지 활용 현황

출판사	단원	한글편지 자료	관련 학습 내용
미래엔컬처	『국어』(상) 3. 우리말 우리글 (1) 우리말의 역사	정조의 편지	근대국어 시기 한글 사용의 확대 양상
		적용 활동: 이응태 부인 편지	높임법 ‘자네’의 의미 변화, 생활 사적 의의 찾기
창비	『국어』(하) 2. 우리말이 걸어온 길 (1) 국어의 역사	이응태 부인 편지	중세국어의 높임법, 의문형 어미, 어휘 의미 등의 변화
천재교육 (김대행)	『국어』(하) 5. 국어생활의 역사적 흐름	이응태 부인 편지	중세 국어생활의 변화 탐구
		선조의 편지	
좋은책	『국어』(하) 6. 국어가 걸어온 길 (2) 국어의 성장과 발전	활동 다지기: ‘이응태 아내의 언간’ 일부	조선전기 국어생활의 양상을 살 펴보는 자료
금성	『국어』(하) 2. 우리말의 역사 (2) 국어의 시대별 모습	정조의 편지	대단원 준비 학습
		인선왕후 어필 언간	17세기 국어의 모습을 살펴보는 자료로 제시
해냄에듀	『국어』(하) 6. 우리의 말과 글 (2) 국어가 걸어온 길	활동 자료: 인선왕후 한글편지	근대국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활 동 자료로 제시
지학사 (박갑수)	『국어』(하) 7. 말의 길, 글의 힘 (1) 우리말이 걸어온 길	현풍곽씨 언간	17세기 국어의 특징, 중세국어 와의 음운 비교, 어휘 변화, 17 세기의 국어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천재교육 (김종철)	『국어』(하) 2. 국어의 옛 모습 (1) 국어의 역사	완산이씨 언간	근대국어(18세기)의 음운, 표기, 의미, 문법의 특징과 변화를 살 펴보도록 함
		이응태 부인 언간	추가 참고 자료

한글편지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자료는 16세기 자료인 ‘이응태 묘
출토 편지’로 5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이 외에는 17세기 자료인
정조의 편지와 인선왕후의 편지가 각각 2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선조의 편지(1603년)와 ‘현풍곽씨 언간’(17세기), ‘완산이씨 언간’(18세기)
이 각각 1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응태묘 출토 편지’가 유독 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된 것은, 이 자료가 국어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¹⁾, 국어 외적인 측면에서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쓴 편지로서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과 남편을 잃은 비통한 심정 등을

1) ‘이응태묘 출토 편지’에는 16세기에 새로 등장한 종결어미 ‘호소’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이인칭 대명사 ‘자네’와 ‘호소’체를 사용한 점도 독특하다.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독특하고 흥미롭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근대국어 자료로 제시된 ‘현풍곽씨 언간’, ‘인선왕후 어필 언간’, ‘완산이씨 언간’ 등도 모두 근대국어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국어사적 측면 외에도, 각각 자식의 한글 공부를 챙기고 집안을 걱정하는 가장의 모습, 시집 간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들의 공부를 독려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생활사의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자료들이다. 이처럼 현재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한글편지들은 시대별로 음운이나 어휘의 의미, 종결어미나 의문법 등 통사적 측면에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특징 및 변화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한글 학습, 한글 사용의 확대 등 문자 생활의 양상을 반영하고, 당시 일상생활의 모습과 개개인의 사적 감정, 삶의 태도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는 기존의 간본을 중심으로 한 국어사 교육으로부터 차츰 ‘국어생활사’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편지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현재 16종 중 절반인 8종의 교과서에서 한글편지를 자료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조선시대의 국어 생활을 좀 더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한글편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그러나 여전히 한글편지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한글편지를 활용한 경우에도 몇몇 자료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한글 자료들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측면의 국어사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3장에서는 2009년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사 교육의 내용에 따라 한글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4-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글편지를 이용하여 친족 간 호칭·지칭어, 청자높임법의 사용 양상, 전통적 수사법과 관용 표현을 학습할 수 있음을 몇몇 사례를 통하여 보일 것이다.

2) 다만 한글편지를 활동 자료의 하나로 혹은 참고 자료로만 제시한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국어사 교육에서 한글편지의 활용이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III.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의 내용

위에서 현행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한글편지가 활용된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 중인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글편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를 제외한 기존의 선택 과목인 ‘국어생활’, ‘화법’, ‘작문’, ‘독서’, ‘문법’, ‘문학’을 ‘화법과 작문 I, II’, ‘독서와 문법 I, II’, ‘문학 I, II’로 재구조화하였는데, 이 중 ‘독서와 문법’의 ‘문법’에서는 ‘국어와 얼’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국어의 변천’과 ‘국어의 미래’로 나누어 학습하도록 하였다. ‘국어의 변천’은 ‘국어의 길’, ‘한글의 창제와 문자생활’, ‘선인들의 국어 생활’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국어의 계통과 음운·단어·문장·담화 등에서 국어의 변천사, 한글의 창제 원리와 의의,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의 문자생활사, 선인들의 국어생활(전통적 수사, 속담, 관용어 등), 국어 수난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국어를 지키고 사랑한 선인들의 태도 등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편지는 ‘국어의 변천’ 측면에서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별 국어의 특징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음운, 표기, 어휘, 통사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문자생활’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는 자료로서도 유용하다. 또한 ‘선인들의 국어생활’ 측면에서 한글편지는 다른 자료에 비해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나의 한글편지 안에서 다양한 비유법이나 반복법, 생략법 등의 전통적인 수사법과 속담, 관용어, 특히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인간관계 표현어’나 각종 의전 의례에 쓰이는 ‘의례 언어’ [...] 인사말, 감사 표현, 사죄 표현, 덕담, 편지 문안 표현 등의 다양한 일상 의례에 쓰는 표현”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무엇보다도 한글편지는 대개 (발신인이나 수신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3)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선인들의 국어 생활’에서 비유법·강조법·반어법·반복법 등의 ‘전통적 수사’를 학습하는 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다루지 못하였던 일기, 인간 자료들과 비문학 자료인 개인 문집, 역사서, 개화기 언론 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211쪽).

‘여성’인 경우에) 친족들 사이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특성으로 인해⁴⁾ 지역 방언이나 개인의 독특한 말투 등 구어(口語)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고⁵⁾, 일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일상용어가 빈번히 등장하였다.⁶⁾ 이처럼 한글편지는 기존의 국어사 교육에 사용된 문헌들에 비해 목적이나 내용이 당대의 일상생활, 개인의 삶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대의 구어에 가깝다는 점에서 좀 더 ‘현실성’을 지닌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사 교육에서 ‘낯선 말’에 대한 학습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과거의 삶과 말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글편지가 효과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국어’ 및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 국어의 변화를 학습하는데 한글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친족 간의 호칭·지칭어의 변화, 둘째, 관계에 따른 청자높임법 사용의 양상, 셋째는 반복법, 생략법 등의 수사법과 인사말 등의 관용 표현이다.

과거의 대가족 사회와는 달리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친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는 점차 단순해지는 동시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호칭어와 지칭어 문제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의 언어생활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친족어는 신체어, 수사 등과 함께 가장 기초적인 어휘에 속하므로 한글 창제 이후에 간행된 문헌들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4)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의 여성일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정식 한문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성이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이나 아들, 출가한 딸, 친정 가족 등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한글편지였다. 사대부 남성들은 한문편지(‘眞書’라고도 함)를 주고받았는데, 그들 사이에 한글편지를 주고받은 경우는 집을 떠나 있는 가정이 아내에게 한글편지를 쓰면서 어린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덧붙여 보낸다든가, 외교적인 이유로 한문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 등 몇몇 특수한 경우에 한글편지를 써 보내는 일이 있었다. 그 밖에 사대부 남성이 한문을 모르는, 그러나 한글은 깨우친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 반대로 종들이 상전에게 보고하는 告目의 경우에도 한글편지가 사용된 예가 있었다.

5) 한글편지에 쓰인 어휘 중에는 문헌에 등장하는 어휘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나 의미는 다르게 사용된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는 당시 실제 구어에서 사용되던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현대국어에서도 어휘가 실제 발화에서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6) 한글편지에는 상투적인 인사말이나 독특한 생략 표현 등 고유의 독특한 문체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투성, 고유의 독특한 문체는 앞서 언급한 ‘구어의 반영’이라는 측면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편지의 ‘구어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순한 친족어가 아니라, 친족들 간에 실제로 사용된 호칭어와 지칭어를 간본에서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며느리 > 며느리’나 ‘사회 > 사위’라는 친족어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시부모나 처부모가 이들을 ‘부를 때’, 그리고 ‘가리킬 때’ 어떤 어휘를 사용했는지 간본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친족들 사이에서 소식을 주고받은 수단이었다는 자료의 특성상 한글편지에는 이러한 실제 호칭어, 지칭어의 다양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마다, 집안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글편지에서 시부모가 며느리를 ‘아기, 아기시’라고 호칭하거나 ‘**(지명) 아기’, ‘**(자식 이름) 어마님’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모가 사위를 ‘서방님’이라고 호칭하거나 장인, 장모가 사위를 ‘*(성) 서방’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확인된다. 이처럼 과거에 사용되었던 친족 호칭·지칭어와 현재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봄으로써 어휘의 의미 축소 및 확대라는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관계에 따른 다양한 청자높임법의 사용 양상이다. 물론 한글편지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마주하여 대화하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발화를 기록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간본에 등장하는 대화와는 달리 실제 인물들이 또 다른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발화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언어생활의 생생한 현실을 보여준다. 간본의 경우는 대화체 형식을 지닌 외국인 회화서의 경우라도 실제 발화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번역박통사》나 《번역노걸대》 및 이 계통의 근대국어 자료에서 ‘큰형님’이라고 부르고는 ‘너’라는 이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청자높임법으로 ‘ħ라’체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에 비해 한글편지는 다양한 친족관계에서 주고받은 기록으로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나이, 성별, 친밀감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대개 ‘ħ쇼셔’체가 사용되었는데,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ħ소’체를 사용한 편지도 보인다가, 고모부가 조카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조카에게는 ‘ħ라’체를 사용한 반면 조카며느리에게는 ‘ħ소’체를 사용하는 등 단순히 친족관계의 상하를 떠나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다양한 청자높임법을 사용한 실제 언어생

활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글편지는 당대의 구어를 반영하는 자료인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의 고유한 격식을 지닌 ‘글’로서 독특한 생략 표현이나 상투적인 인사말, 관용 표현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편지 서두의 문안 표현이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인사말·덕담 등이나 비유법·반복법·생략법 등의 전통적 수사법, 그 밖의 관용적 표현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글편지에서 주로 확인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한글편지가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이나 격식성은 현대국어의 편지글이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 사용되는 인사말이나 생략 표현, 관용적 표현 등과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언어가 현재의 일상 언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국어의 변화와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글편지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IV.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

1. ‘아자바님, 아즈마님’의 경우

국어에서 친족어의 의미가 확대되어 친족이 아닌 남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친족어가 아예 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면서 정작 본래의 친족어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현대국어 ‘아저씨, 아주머니’이다. 현대국어에서 ‘아저씨, 아주머니’는 사전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 같은 항렬에 있는 친척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지만 현재의 국어 생활에서는 그보다는 “남남끼리에서 남자 어른을 예사롭게 이르는 말” 혹은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는 말”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다만 ‘아즈마님’에서 변화한 ‘아주머니’만은 현대국어에서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제한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이 쓰이던 자리가 ‘큰아버지·작은아버지·백부·숙부·삼촌·고모부·

이모부’, ‘이모·고모·큰어머니·작은어머니·백모·숙모’, ‘형수·제수’ 등과 같은 어휘로 대체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⁷⁾

중세국어에서 ‘아자비, 아자바님’과 ‘아즈미, 아즈마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아버지 항렬의 남자’, 즉 백부, 숙부, 당숙 등이나 ‘어머니 항렬의 여자’, 즉 이모 또는 그에 준하는 ‘고모, 백모, 숙모 등’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둘째는 ‘남편과 같은 항렬의 남자’(시아주버니나 시동생 등)나 ‘형수, 제수’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⁸⁾

- (1) ㄱ. 열닐구분 아자비와 尊長 恭敬 아니호미니 엇테어뇨 醉醉하야
어즐하야 글히웁 업슨 다시라 <월석 23:2ㄱ>
ㄴ. 舅 아자비 구 [...] 伯 몬아자비 빅 叔 아스아자비 숙<훈몽 상:16ㄴ>
ㄷ. 姨母는 아즈미라 <법화 4:186ㄴ>
ㄹ. 姪 아즈미 금 [...] 姑 아즈미 고<훈몽 상:16ㄱ-ㄴ>
ㅁ. 네 迦毘羅國에 가아 아바님과와 아즈마님과와 [...] 아자바님내의 다 安否하
습고 <석상 6:1>

- (2) ㄱ. 弘이 집의 도라오나날 그 겨집이 마조 내드라 弘 더브러 닐우디 아자비
이 쇼를 쏘와 주게라 弘대 <변소 9:78ㄱ>
ㄴ. 劉哈刺不花的 兵馬 | 李仲義를 자바 슬모려커늘 仲義의 앞이 드라가아
아즈미 劉氏드려 닐어늘 <삼강-런던 열:28>
ㄷ. 嫂 아즈미 수 <훈몽 상:16ㄴ>

위의 예 (1)은 ‘아자비, 아자바님’, ‘아즈미, 아즈마님’이 부모 항렬의 친척 어른에게 쓰인 경우의 예이고, 예 (2)는 ‘아자비, 아즈미’가 시동생이나 형수를 가리킬 때 쓰인 예이다.

7) 이러한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친족어 ‘아자미, 아즈미’만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 대상을 좀 더 세분화된 호칭, 지칭어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변화를 이끈 동인이었을 것이다.

8) ‘아자비, 아즈미’의 기원과 의미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다. 이기문(1983)에서는 ‘아자비’는 ‘앗+아비’에서, ‘아즈미’는 ‘앗+어미’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때 ‘앗’은 ‘少’의 원의(原義)를 지니는데 방계(傍系) 존속(尊屬)의 호칭에 쓰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조항범(1996)에서는 ‘아자비, 아즈미’ 계열 친족 어휘의 의미와 근대국어 시기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최근의 연구 중 박부자(2010)에서는 ‘아자비, 아즈미’ 계열의 어휘가 한글편지에서 사용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간본에 비해 한글편지에는 ‘아자비, 아즈미’보다 ‘아즈바님, 아즈마님’이라는 지칭어가 주로 나타난다. 한글편지의 경우는 실제로 화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므로 부모 항렬의 친척 어른에 대해 ‘아즈바님, 아즈마님’이 주로 사용되어 근대국어 시기까지도 이러한 호칭·지칭어가 일반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⁹⁾

- (3) ㄱ. 자근덕 아즈바님¹⁰⁾ 적기로 평치 못하시니 답답함오며 <언간 195>¹¹⁾
 ㄴ. 아즈바님이 오늘 가실 길헤 우리게 둔겨 가려 하시니 <달성 64>
 ㄷ. 아즈마님겨오서 여러 들 초전함옵시던 곳틱 이런 참척을 만나옵서 일야
 인통 곡읍으로 디내옵시니 <언간 17>
 ㄹ. 아즈마님겨오서 신넌은 숙병이 다 쾌차함옵시다 함오니 깃브와 함옵느이다
 <언간 145>

백부, 숙부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백모, 숙모를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로 부르거나 가리킨 예들은 19세기 한글편지에서 비로소 그 예가 보이고 있다.¹²⁾

- 9) 아버지, 어머니 항렬의 친척이 여럿일 때에는 지명을 붙여 ‘** 아즈바님’, ‘** 아즈마님’이라 지칭하였다. 이름을 함께 사용하여 ‘아즈바님 **씨, ** 아즈바님’이라 한 예도 보이는데, 이는 항렬은 높으나 나이가 적은 먼 친척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늘날에도 먼 친척 간에 흔히 사용되는 호칭·지칭 방식이다. 한편 근대국어 한글편지 자료에서는 ‘아즈바님, 아즈마님’ 외에 ‘백부, 중부, 계부’나 ‘백모, 숙모’ 등의 한자어를 사용한 예들도 확인된다.
- 10) ‘아자바님’이 ‘아즈바님’으로 표기된 예는 이미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16세기는 아직 모음 ‘ㆍ’와 ‘ㅏ’가 혼동될 시기가 아니므로 이처럼 모음 ‘ㅏ’가 ‘ㆍ’로 바뀐 것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이기문(1983)에서는, ‘앗+아버→아자비’와는 달리 ‘앗+어미→아즈미’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중세국어 이전 시기부터 비어두음절에서 모음이 ‘ㆍ’나 ‘ㅡ’로 바뀌는 현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 11) 한글편지 자료의 출처와 약호는 다음과 같다. 편지의 번호는 출처에서 제시한 것을 따랐다.

<언간>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三訂版)』
<청주>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달성>	백두현(2003), 『현풍곽씨 언간』
<송준길>	이광호·신익철·박부자(2009),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간찰』
<순원>	이승희(2010),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 12) ‘큰어마님, 즈근어마님’, ‘큰아바님, 저근아버님’의 예는 박부자(2010)에서 제시한 것을 재인용.

- (4) ㄱ. 예는 큰어마님계옵서 종종 불령흐옵시니 <의성김씨 146>
 ㄴ. 집은 협축흐옵고 정초 즈근어마님 제스날 웃지웃지 님여 가시옵
 <전주이씨 5>
 ㄷ. 큰아바님 전 상술이 [...] 덜부 술이 <의성김씨 145>
 ㄹ. 저근아버님 초시 참방흐오심 든든 다령흐오나 <의성김씨 146>

오늘날과 같이 ‘백부, 숙부, 외숙’ 등에 대해 ‘삼촌’을 사용한 경우도 이미 17세기 한글편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나¹³⁾, ‘삼촌’은 본래 사촌, 육촌 등과 같이 ‘촌수’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반드시 ‘남성’에 국한된 호칭, 지칭어는 아니었다.¹⁴⁾

한편 한글편지를 통해 중세국어, 근대국어 시기에는 남편과 같은 항렬의 친척 남성, 즉 시아주버니나 시동생 혹은 여동생의 남편을 ‘아즈바님’이라 하고, 아내와 같은 항렬의 친척 여성, 즉 형수나 제수를 ‘아즈마님’이라 호칭,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 (5) ㄱ. 시동생 → 형수: 내 평일의 무상흐와 아즈마님 섬기옵기도 정성 업습고 온갖 말습이 신이 업습고 [...] 텡유 이월 초나흔날 동싱 <언간 122>
 ㄴ. 큰아자마님겨오셔와 둥슈씨가 올라가오시고 계슈씨는 아직 겨오시고 <언간 추사1>
 ㄷ. 형수 → 시동생: 스〃의 아즈바님 심녀흐시는 일 츠마 쪽 흐고 녀무가업스오니다 [...] 이월 녀팔일 동싱 텡 상장 <언간 보34>¹⁵⁾
 ㄹ. 오라바님씨와 안덕 아즈바님씨와 멀리 와 겨옵시다 <달성 137>

위의 예 (5ㄱ)은 윤선도가 형수에게 보낸 편지인데, 형수를 ‘아즈마님’

13) (예) 인선왕후 → 숙명공주: 네 삼촌이 스옹 데되매 지간흐여 인흐여 칭티는 주귀
 흐여시니 삼촌의 인스나 덕여라 <언간 89>

14) 18세기 한글편지에서 고모나 숙모가 조카나 조카머느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를 ‘삼촌’ 혹은 ‘석삼촌’이라 자칭한 경우가 보인다.

(예) ㄱ. 고모 → 조카 부부: 정현 부모의게 겸답 [...] 경 원월 초십일 삼촌 <송준길 27>

ㄴ. 시고모 → 조카머느리: 신부답서 [...] 텡유 납월 십일일 석삼촌 <언간 190>

15) (5ㄷ)에서는 순위 사람인 형수가 시동생에 대해 자신을 ‘동싱’이라 지칭한 점이 특이하다. ‘동싱(同生)’은 본래 ‘동기(同氣)’ 혹은 ‘동기에 준하는 관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시기에는 ‘동기’의 의미로 쓰이거나, 순위나 손아래의 동기를 가리킬 때 두루 쓰였다. 조선시대에 ‘손아래 동기’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는 ‘아우(아오)아우’였다. 현대국어에서는 ‘아우’보다 ‘동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근대국어 시기에 차츰 ‘동싱’의 의미가 ‘손아래 동기’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은 ‘동싱’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5ㄴ)은 김정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형수를 ‘큰아자마님’, 제수는 각각 ‘동슈씨[中嫂氏], 계슈씨[季嫂氏]’로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ㄷ)은 형수가 시동생에게 보낸 편지로, 시동생을 ‘아즈바님’이라 부르고 자기 자신은 ‘동싱’이라 지칭하였다. (5ㄹ)에서 ‘안덕 아즈바님’은 다른 편지에 ‘안덕 동싱’이라 지칭하고 있는 출가한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킨다. 이처럼 ‘아즈바님’은 아버지 항렬의 남자 어른을 부를 때 외에도 남편의 형제라든가 자매의 남편 등 혼인으로 인해 동기에 준하는 관계가 된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어머니 항렬의 여자 또는 고모, 백모, 숙모 등을 가리킬 때 쓰이는 ‘아즈마님’이 형제의 아내나 처남댁 등을 부를 때 사용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¹⁶⁾ 그에 비해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지역이나 집안에서 이러한 호칭, 지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편의 형뻘이 되는 친척 남성에게 대해 ‘(시)아주머니, 아주버님’을 사용하는 용법이 남아 있을 뿐, 시동생에 대해서는 ‘도련님, 서방님’을, 형제의 아내에 대해서는 ‘형수(님), 제수(씨)’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동생의 남편이나 처남의 아내에 대해서는 마땅한 호칭, 지칭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¹⁷⁾

이처럼 중세국어, 근대국어에서 친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로 사용되었던 ‘아자비, 아자바님, 아즈미, 아즈마님’과 현대국어의 ‘아저씨, 아주버님, 아주머니, 아주머님’의 의미 비교를 통해 어휘 의미의 확대와 축소 양상을 학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대국어에서 ‘아저씨, 아주머니/아줌마’가 특히 ‘결혼한 남성,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학습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16) ‘아즈바님’이 형수나 제수를 부를 때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문헌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에 처형이나 처제를 ‘아즈마님’이라 불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17)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개 아이의 이름을 붙여 ‘** 아버지, ** 어머니’ 등으로 이르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표준 화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각각 ‘아주버니, 아주버님’과 ‘아주머니, 아주머님’이라 할 것을 제시하였다(국립국어연구원·조선일보 편, 『우리말의 예절』, 1991).

2. ‘아기’의 경우

한글편지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아기’라 한 것이 자주 보인다. 특이한 점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 그리고 장성하여 이미 일가를 이룬 아들에게까지 ‘아기’라는 호칭·지칭어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6) ㄱ. 어머니 → 딸: 채서방적 아기께 아기내 온 후에 었디 인느고 분별호노라
(청주 59)

ㄴ. 아버지 → 딸: 채민 아기네 형데손디 (청주 132)

ㄷ. 어머니 → 아들: 두 아기네 전 상빅 [···] 모 안 (연간 3)

ㄹ. 아버지: 아기노 닉일 나가 든녀서 모피로사 집으로 가리로쇠 (달성 19)

(6ㄱ, ㄴ)은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채씨, 민씨 가문에 시집간 딸들을 ‘아기, 아기’로 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6ㄷ)은 송강 정철의 어머니 안씨가 시묘를 하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들을 ‘아기’라 부른 예이며, (6ㄹ)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들을 ‘아기’라 가리킨 예이다. (6ㄷ, ㄹ)의 경우도 ‘아기’라 불린 아들들은 이미 어른이었다. 이와 같은 언어 사실은 현대국어에서 장성한 자식에 대해 어머니가 종종 ‘아이, 애’라는 호칭, 지칭어를 사용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¹⁸⁾

시부모가 며느리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도 ‘아기’라는 호칭, 지칭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단순히 ‘아기’라 하거나 ‘**(지명) 아기’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시(氏)’를 붙여 ‘아기시’라고 하거나 갖 시집온 며느리를 ‘새아기시’라 지칭한 예도 보인다.

(7) ㄱ. 시어머니: 옥천 아기도 제 지빅 갖다 (청주 32)

[참고] 옥천 며느리는 …… (청주 30)

ㄴ. 시아버지: 면화는 아기시 드라 봉호여 보내닉 (달성 30)

ㄷ. 송춘서 새아기시 흥호호오시는 줄 아을식 대강 알외옵느이다 (송준길 41) 19)

18)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가리켜 ‘큰 애는 들어왔니?’와 같이 말할 수 있다.

19) ‘새아기시’의 예는 박부자(2010)에서 재인용.

현대국어에서도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 ‘새아기’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손자가 없을 경우에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어휘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시부모-며느리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아기’ 외에도 부모가 어린 자식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주로 이름을 사용하였고, 결혼한 딸은 남편의 성을 따라 ‘* 집, * 서방집’ 등으로²⁰⁾, 장성한 아들의 경우는 ‘싱원’ 등의 직명을 사용하거나 ‘(성) 서방’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²¹⁾ 또한 손자가 있는 경우라면 ‘(손자 이름) 아비, 어미, 어마님’²²⁾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국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 (8) ㄱ. 어머니 → 딸: 채서방집 <청주 13>, 민집과 여쁠 낭식 논화라 <청주 9>
 ㄱ'. 외삼촌 → 조카딸: 민집 보아라 네도 잘 디내고 네 어미도 잘 디내느냐
 <언간 197>
 나. 어머니 → 아들: 싱위넛손디 가떡 올 제 온 유무 보고 댜히 이시니 어미
 깃브미로다 <청주 55>
 다. 어머니 → 아들: 송 서방손디 [...] 지월 념늑일 모 <송준길 48>
 르. 아버지 → 딸: 슈넛 어민게 요스이 엇디 아히히고 인는다 <청주 148>
 마. 어머니 → 아들: 몽 아비 보아라 <언간 보27>
 바. 시어머니: 도글 못 얻거든 슈오귀 어마님드려 다르귀 빠리나 ## 사다가
 드마라 <청주 113>

한편 현대국어의 친족어에서 ‘아가씨’는 손위 올케가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이나, 한글편지에 나타난 예를 보면 ‘아가씨’의 앞선 형태라 할 수 있는 ‘아기시’가 여동생에 대해서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 ㄱ. 언니 → 여동생: 아기시씨 아으넛전 답장 근봉 <달성 163>

20) 박부자(2010)에서는 이 밖에도 ‘남편의 성+벼슬명+집’, ‘시가 거주지명+집’으로 부른 예도 있으며, 18세기 중반부터는 ‘남편의 성+실(室)’로 부른 예가 많아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21) 송준길 후손가 편지에 아들을 ‘송 서방’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준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22) 현대국어에서 며느리를 지칭하는 ‘** 어멈’은 바로 이러한 ‘** 어마님’에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ㄴ. 먹 녀 장 가오니 혼 장으란 어마님 쓰옵시고 두 장으란 두 아기시 주시고
 혼 장으란 대입이 글 스라 호쇼서 <달성 132>

위의 예 (9-1)은 언니가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아기시’와 ‘아으님’이라는 호칭이 함께 쓰였음을 볼 수 있다. (9-2)은 딸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서 출가하지 않은 두 여동생은 ‘두 아기시’로, 아직 어린 남동생은 ‘대입’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3. ‘형’의 경우

한글편지에서 동기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는 부모-자식이나 부부 사이에 비해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동기를 부르는 호칭어는 많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 대신 부모와의 편지에서 동기를 지칭하는 어휘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간의 호칭어, 지칭어 중에서 현대국어와 다른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여동생이 언니를 ‘형, 형님’이라 부른 사실을 들 수 있다.

- (10) ㄱ. 인선왕후 → 숙명공주: 네 아은 밤마다 느려갈 적이면 형님 잇던 ##
 흙씩 갈라쇠 호고 느려가서 울고 ” 호니 <연간 100>
 ㄴ. 효종 → 숙명공주: 너는 어이 이번의 아니 드러온다 어제 네 형은 출
 노리개엿 거슬 숙취지이 만히 가지되 네 목은 업스니 너는 그 스이만
 하야도 하 어떤 일이 만호니 애들과 덕노라 <연간 41>

위의 편지에서 (10-1)의 ‘형님’은 숙명공주의 동생의 입장에서 언니인 숙명공주를 부른 것이고, (10-2)의 ‘네 형’은 수신인인 숙명공주의 언니 숙안공주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자매들 사이에도 ‘형, 형님’이라는 호칭과 지칭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여자가 손위 시누이나 손위 동서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현대국어에서 여자 동기들 사이에 사용되는 ‘언니’라는 단어는 19세기까지도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언니’는 본래 ‘동성의 손위 동기를 이르는 말’로 남녀 구별 없이 사용되어, 남자끼리 손위 동기에게 ‘언니’, 여자끼리 손위 동기에게 ‘언니’라고 부를 수 있었다.²³⁾ 그러던 것이

현재는 여자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굳어진 것이다. ‘언니’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방언처럼 쓰였던 듯하며, 과거에는 ‘동성의 순위 동기’에 대해 남자는 여자는 ‘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20세기 이후의 현대 자료 중에도 일부 소설 등에는 ‘동성의 순위 동기를 이르는 말’로 남자 형제 사이에서 ‘언니’가 사용된 예나 여자 동기 사이에서 ‘형’이 사용된 예가 나타나므로 이를 현재의 언어 현실과 비교함으로써 어휘 의미의 변화를 관찰하는 학습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상황에 따른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청자높임법은 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만큼 국어의 이해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청자높임법의 변화 역시 국어사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청자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실제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발화되는 것인 만큼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맥락과 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한글편지는 (대개 친족 간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가 드러나고, 동일한 관계라 할지라도 나이, 성별, 친밀도,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이다. 한글편지에 나타난 독특한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은 당시의 사회생활, 구체적으로는 친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친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자높임법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한글편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당시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따른 언어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1. 상위자가 하위자를 높여 대우하는 경우

한글편지에서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 아저씨·아주머니와 조카와 같이 친족 내에서 상하관계가 뚜렷하게 나뉘는 경우에, 하위자는

23) 졸업식 때 불리는 노래에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의 ‘언니’ 역시 바로 이러한 ‘동성의 순위 동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24) 이승희(2005)에서는 16-19세기까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반드시 상위자에게 높임 등급의 ‘호쇼서’체를, 상위자는 대체로 하위자에게 낮춤 등급의 ‘하라’체를 사용하였다.

- (11) ㄱ. 어머니 → 딸: 요스이는 엇디 인노다 [···] 밧브고 형치 가실 거시라
이만호노라 <청주 57>
 ㄱ'. 딸 → 어머니: 동싱들 거느리옵시고 귀운 편호옵삼과 수이 뵈오몰
 다시곰 브라옵노이다 <달성 124>
 ㄴ. 어머니 → 아들: 가떡 올 제 온 유무 보고 도히 이시니 어미 깃브미로다
 [···] 다몬 도히〃 잇거라 <청주 55>
 ㄴ'. 아들 → 어머니: 부디부디 몸 도섭호옵서 병환 업시 겨옵쇼서 <언간 158>

그러나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호소’체나 ‘호쇼서’체를 사용한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이는 하위자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발신인과 수신인 관계의 특수성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 (12) ㄱ. 어머니 → 아들: 나는 의심 업시 이대 인노이다 형대부니 이대 겨쇼서
 [···] 모 안 <언간 1>
 ㄴ. 계조모(대비) → 손녀(공주): …… 님일 드러온다 다형 깃브며 불가 기드리고 잇넌 <언간 36>²⁵⁾
 ㄴ. 송시열 → 종손녀 : …… 인는 님 이리 머리 괴별도 이후는 드를 길이
 업스니 지극 설〃헐 이만 계히 십월 이일 스촌대부 시렬
 ㄴ'. 송시열 → 종손녀 : …… 병 드러 이만 덕노이다 병인 정월 스므닐웬날
 종조 회덕 서

(12ㄱ)은 송강 정철의 어머니 안씨가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높임의 ‘호쇼서’체를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자식일지라도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 높여 대우하기도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12ㄴ)은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가 손녀인 공주들에게 ‘호소’체를 사용한 예인데, 이는 장렬왕후가 며느리, 즉 공주의 어머니인 인선왕후보다도 나이가 어려 상대적으로 손녀들과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공주들이 이미 출가하여 자식을 둔

25) 비슷한 시기에 쓰인 편지이나 숙명공주의 부친인 효종이나 모친 인선왕후는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깃거호노라 <언간 45>’, ‘글월 보고 무스헐니 깃거호며 보논 듯 든〃 반기노라 <언간 53>’과 같이 ‘하라’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할머니-손녀의 경우처럼 ‘하라’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2ㄷ, ㄷ')에서는 종조부가 종손녀에게 ‘하라’체가 아닌 ‘호소’체와 ‘호쇼서’체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친손녀가 아니고, 자기 제자의 아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한 결과라 추정된다.

한편 시부모-며느리 관계나 처부모-사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준하는 상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 특히 장모가 사위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하듯 ‘하라’체를 사용한 경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13) ㄱ. 장모 → 사위 : 채서방의 답장 [...] 아히들 호고 었디 인논고 분별호노
 [...] 기리 조모 <청주 48>
 ㄴ. 장모 → 사위 : 서방님이야 이대도록 호 경상 었지 짐작호시오리잇가
 [...] 처모 권 <연간 보30>

장모가 사위에게 보낸 한글편지에는 (13ㄱ)에서 보이듯 대개 ‘호소’체가 사용되었고, 때로는 (13ㄴ)과 같이 ‘호쇼서’체를 사용한 예도 보인다. 특히 (13ㄴ)의 경우는 호칭어도 ‘서방님’이라 한 점이 눈에 띈다.²⁶⁾ 현대사회에서도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에 비해 처부모와 사위는 좀 더 어려운 관계임에 틀림없다. 오늘날보다 훨씬 강력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사회였고, 출가한 여성의 ‘호’의 대상이 친정 부모가 아닌 시부모인 것이 당연시 되는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사위는 말 그대로 ‘백년손님’이었고, 장인 장모가 ‘자식처럼’ 대우할 수 없는 존재였다. 따라서 시부모가 며느리를 딸과 같이 대우할 수는 있었지만, 장인 장모는 사위에 대해 아들에게 하듯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나 아들딸의 차별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요즈음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처부모와 사위의 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장인·장모의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어, 청자높임법 등을 통해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6) 사위에게 부사격 조사로 높임의 ‘-씨’를 사용한 점도 자녀에 대한 대우와는 다른 점이다. 또한 아들이나 딸에게는 이인칭 대명사 ‘너’를 사용한 것에 비해 사위에게는 이보다 높은 ‘그디’나 ‘자내’를 사용한 예도 보인다.

2. 부부간의 대우방식

한글편지 중에서 특히 부부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경우는 조선시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한글편지 자료들은 대부분 수신인이 편지를 받아 모아둔 것이 전하고 있으므로 ‘서로 주고받은 것’, 즉 한 사람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도 함께 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간혹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함께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부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래 보이는 예 (14)는 16세기 중엽 충청지역에서 아내가 보낸 편지와 그에 대한 남편의 답장이고, 예 (15)는 17세기 초반 영남 지역에서 남편이 보낸 편지에 대한 아내의 답장이다.

- (14) ㄱ. 아내 → 남편: …… 그 소늘 가시던 날부터 알하 그 소니 오로 붓고 치우며 […] 열여쨌날 싱워니 제 와 침들 주니 쏘 도로 브어 하 알하거늘 […] 인슴 패독산을 열 원 내 아즈바님 혼 복 흥여 보내셔늘 그를 먹노 […] 내 병 근심히디 마소 오라바님 이시니 아니 고탈가 […] <청주 82>
- ㄴ. 남편 → 아내: …… 쏘 소니 그러면 비록 둥티 아니히다 올홀가 그 편지 본 나른 즈미 아니 오니 새도록 근심히고 인노 […] 오시 관계호가 아조 밧디 아니히엿거니 글란 근심 마소 아내 주그면 그때나 어더 니블가 글로 므스므려 용심히시노고 소니 그리 브어 인는 거슬 보셔늘 기우신가 ㄱ장 뜯 업시 녀기노 …… <청주 190>²⁷⁾
- (15) ㄱ. 남편 → 아내 아희들 드리고 치위에 었디 겨신고 […] 보성 흥츠는 언제로 가시노고 […] 아희 시작히여든 즉시 사름 보낼 일 일현히 마소 <달성 27>
- ㄴ. 아내 → 남편: 불의에 돌이 오나늘 아바님 뵈옵고 편안히신 유무 보옵고 깃거히노이다 <달성 112>
- (16) 남편 → 아내: 지나가는 인편 잇다 흥기 두어 자 적습노이다 초삼스 간은

27) <청주 190>은 <청주 82>에 대한 답장이다. <청주 82>는 순천 김씨가 쓴 것으로는 유일한 편지로 보인다. 손이 붓고 아파 침을 맞고 있는데 오라바님이 병을 살펴주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것, 그 밖의 집안일을 이야기하고 결탁된 뒷부분에서는 ‘둥치막’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옷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답장인 <청주 190>에서는 아내의 병을 근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을 전하며 아내가 병중에도 자신의 옷 짓는 일로 신경 쓰고 수고한 것을 나무라며 걱정하고 있다.

예 (14)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똑같이 ‘ㅎ소’체를 사용한 데 비해 예 (15)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ㅎ소’체를, 아내는 남편에게 ‘ㅎ쇼셔’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한글편지들을 보면 대체로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은 ‘ㅎ쇼셔’체를,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는 ‘ㅎ소’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예 (14)에서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ㅎ소’체를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²⁸⁾ 또한 예 (16)과 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높임 등급의 ‘ㅎ쇼셔’체와 ‘ㅎ읍’체를 함께 사용한 예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가 비록 남성 중심의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고 가족 내에서 가장,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으나 남편-아내의 관계가 엄격한 상하관계만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로 인식되었기에 예 (14)나 (16)과 같은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VI. 한글편지에 나타난 전통적 수사법과 관용 표현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글편지는 비교적 구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한편으로 편지 고유의 격식과 상투성을 지닌 글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글편지에 나타난 반복법이나 생략법 등의 수사법이나 인사말을 비롯한 관용 표현들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이러한 수사법이나 관용 표현은 현대국어의 편지글 등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의 변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반복법

조선시대 한글편지에는 단어, 특히 부사를 반복하거나 혹은 ‘어근+ㅎ-’의 구성을 지닌 용언에서 어근을 반복한 ‘어근+어근+ㅎ-’로 강조를

28) 16세기 자료인 ‘이응태묘 출토 편지’에서도 이응태 부인이 남편에게 ‘ㅎ소’체와 ‘ㅎ쇼셔’체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편지에서는 남편에게 이인칭 대명사로 ‘자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표현한 예가 많이 나타난다.²⁹⁾

(17) ㄱ. 그런 다형^ㅎ고 깃븐 이리 어딴 이시리 <언간 57>

ㄴ. 약 불기는 즉시 아으오시리 ^ㅎ와스오니 드읍거든 보내오리이다 <언간 151>

ㄷ. 내 사랴다가 네 아들 낫는 양 볼 줄 어이 아라시리 도로혀 고이^ㅎ듯 시브고 긔특 ㅎ다 <언간 보13>

ㄹ. 그런 민망 ㅎ 이리 어딴 이시리 <언간 72>

ㅁ. 오는 가는 사름이 업서 쇼식도 즈로 모르니 답 님네 무궁 ㅎ며 <언간 보12>

ㅂ. 도승지는 싱각 뱃피 그리되니 그런 참혹 ㅎ 일이 어딴 이시리 <언간 94>

ㅅ. 이제는 결닌 거시 트이고 아모 걱정도 업는 듯 식환 ㅎ 깃피 <순원 33-7>

ㅇ. 대형왕 턴즈가 총명영^ㅎ시고 죽인^ㅎ신 앓가온 품성이 지원 망극 ㅎ 무이^ㅎ훈 분이로세 <순원 33-12>

위의 예 (17ㄱ, ㄴ)에서는 부사 ‘어딴’와 ‘즉시’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고, (17ㄷ-ㅁ)에서는 ‘긔특^ㅎ다’, ‘민망^ㅎ다’, ‘무궁^ㅎ다’에서 어근 ‘긔특, 민망, 무궁’을 반복하여 ‘긔특긔특^ㅎ다’, ‘민망민망^ㅎ’, ‘무궁무궁^ㅎ며’로 표현하였다. 또한 (17ㅂ-ㅇ)에서는 ‘어근+ㅎ-’에서 어근을 반복하면서 ‘^ㅎ고, ^ㅎ야’ 등은 생략하여 결과적으로 어근만 반복된 ‘참혹참혹’, ‘식환식환’, ‘지원지원 망극망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복법은 현대국어에서도 특히 구어나 구어를 반영한 글에서 강조를 표현할 때 자주 나타나는 수사법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전통적 수사법이 오늘날의 국어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생략법

한글편지는 생략 표현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편지 특유의 종결형태인 ‘^ㅎ읍’체도 ‘^ㅎ쇼셔’체에 선어말어미 ‘-습-’이 결합한 형태로부터 ‘-습-’ 뒤의 어미들이 탈락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29) 실제 한글편지에서는 동일한 글자 혹은 단어를 반복할 때 기호 ‘〃’로 표시하였다.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생략법의 대표적인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 (18) ㄱ. 아바님 알꺃 드려서 유무를 스니 하 요〃혀여 이만 시월 열닐웁날 오라비
여흘 <청주 191>
ㄴ. 빳바 이만 <달성 28>
ㄷ. 든〃 반가오나 <순원 1-3>
ㄹ. 원통 앓갑고 불상 한심흐니 <순원 1-15>

(18ㄱ, ㄴ)은 편지의 끝인사가 ‘이만 덕닉, 덕노이다’ 정도로 나타나야 할 때 ‘이만’으로 맺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편지에서 ‘그럼 이만’과 같은 끝인사를 쓰는 관습의 기원은 이처럼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18ㄷ, ㄹ)은 용언을 나열할 때 ‘든든히고 반가오나’와 같이 ‘-히고’나 ‘-히려, -하야’ 등으로 연결하여야 할 상황에서 어근 뒤의 ‘-히고’ 등이 생략된 표현이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긴 단어를 짧게 줄이거나 상투적인 표현이나 관용구를 줄여 말하는 것은 요즘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이러한 생략 표현은 과거의 언어생활이 오늘날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

3. 한글편지의 관용 표현

한글편지에서 상대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나 상대방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 대한 인사말 등은 편지글의 격식성·상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편지는 인사·문안·감사·사죄·덕담 등 다양한 일상 의례에 쓰는 표현을 담고 있는 ‘의례 언어’라는 특성상 상당 부분 정해진 형식과 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한글편지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인사말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 (19) ㄱ.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깃거흐노라 <언간 10>
ㄴ. 글월 보고 무스히 이시니 깃거히려 <언간 35>
ㄷ.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반기노라 <언간 46>
ㄹ. 글월 보고 친히 본 듯 든〃 문내 반기며 <언간 36>
ㅁ. 글월 보고 무스흐니 깃거히려 보는 듯 든〃 반기노라 <언간 53>

ㅂ. 덕스오시니 보옵고 친히 뵈옵는 듯 든〃 반갑스와 호오며 <언간 141>

(20) ㄱ. 밤스이 평안호옵신 일 아옵고져 브라오며 <언간 125>

ㄴ. 상췌의 괴운 평안호신 일 알고져 호오며 <언간 204>

ㄷ. 오늘 형췌 평안히 호옵신 문안 아옵고져 호오며 <언간 보7>

ㄹ. 문안 알외옵고 상한의 괴후 안녕호옵신 문안 아옵고져 브라오며 <언간 195>

ㅁ. 문안 알외옵고 일기 어즈럽스온디 괴운 엇더호오신 문안 아옵고져 브라오며 <언간 보16>

(20') 문안 알외옵고 괴후 안녕호옵신 문안 아옵고져 브라오며 알외올 말씀 하감호
옵심 젓스와 이만 알외오며 내내 괴후 만안호옵심 브라옵느이다 년 월
며츨날 즈부 솔이

위의 예 (19ㄱ-ㅂ)은 상대방의 편지에 대한 답장의 첫머리인데, ‘(상대방의) 편지를 보고 잘 지내고 있다니 기쁘다’ 또는 ‘편지를 보고 직접 보는 듯 든든하고 반갑다’는 내용의 인사말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 (20ㄱ-ㅁ)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모두 ‘밤스이, 상췌의, 오늘, 상한의, 일기 어즈럽스온디’ 등과 같은 시간 표현과 함께 ‘(상대방이) 평안하신지 혹은 기운이 어떠하신지 안부를 알고자 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지의 격식과 형식은 『언간독』과 같은 책을 통해 학습되기도 하였다. 예 (20')은 19세기 자료인 『증보언간독』에서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내는 문안편지의 형식인데, 이를 예 (20ㄹ, ㅁ)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³⁰⁾

편지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인사말 외에도 한글편지에는 소식을 묻거나 전하면서 사용하는 다양한 관용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른 간본 자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제시한 ‘아프라타 없다’, ‘(님네, 일념, 향념, 념) 브리디 못호다’는 이러한 관용 표현 중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예이다.

(21) ㄱ. 괴별 듯고 친히 본 듯 든〃 호기 아프라타 업스며 어제는 날이 흐릴가
님네 ㄱ이엿더니 날도 도쿄 무스히 다네니 다형 깃브기 아프라타 업스나

30) 한글편지의 인사말 등과 같은 의례적 표현은 한문편지의 전통에 따른 것이 상당한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언간 35〉

ㄱ'. 천만 의외에 상식 나오니 경통 참절호오미 아므라타 업스온 등 〈언간 140〉

ㄴ. 식골은 역질이 혼타 호오니 넌너 브리웁디 못호와 호옵느이다 〈언간 보16〉

ㄴ'. 노독이나 아니 나고 평온흔디 향넌 브리디 못호닉 〈순원 33-7〉

예 (21ㄱ, ㄱ')에 보이는 ‘아므라타 없다’는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즉 ‘무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크다’의 의미로 대개 상대방의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 혹은 슬프고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였다. (21ㄴ, ㄴ')의 ‘넌너, 향넌 브리디 못호다’는 ‘염려, 걱정을 놓지 못하다’의 의미로 상대방의 안부를 걱정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다. 현대국어에서도 감사 편지, 위문 편지, 청첩장, 초대장 등에서 의례적인 관용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관용 표현과 현대국어 편지의 관용 표현을 비교함으로써 언어가 변화하는 동시에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음말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와 국어사 교육에서 기존의 간본 외에 한글편지가 국어사적 변화와 함께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흥미롭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09년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한글편지를 국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 중 ‘아자바님, 아즈마님’, ‘아기’, ‘형’ 등이 현대국어의 ‘아저씨, 아주머니’, ‘아기’, ‘형’ 등과는 다른 의미 범위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임으로써 어휘 의미의 확대와 축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한글편지에서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청자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통해 높임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당대의 생활사,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한글편지에 나타난 반복법·생략법 등과 같은 전통적 수사법과 인사말 등의 관용 표현이 편지의 격식성과 형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또한 이를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국어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조선시대 한글편지는 ‘일상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공식적인 ‘역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의 삶,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만큼 실제 삶 속의 국어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한글편지는 다른 어떤 문헌보다도 국어사 교육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글편지를 국어사 교육에 활용한다면, 국어의 역사를 단순히 지금은 사라져버린 ‘화석’을 관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의 언어생활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한글편지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소개,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7차 개정 국어 교육과정 해설』. 2007.
- _____,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해설』. 2009.
- 구본관,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교육』 제10집, 2009, 1-48쪽.
- 김일근, 『언간의 연구(三訂版)』.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 박부자, 「국어의 친족 어휘사」. 2010년 국어사학회 여름 학술대회 발표문, 2010.
- 백두현, 『현풍곽씨 언간 주해』. 태학사, 2003.
- 안귀남, 「고성이씨 이응태묘 출토 편지」. 『문헌과해석』 6, 문헌과해석사, 1999.
- 이광호 · 신익철 · 박부자, 『은진송씨 송규렴가문 한글간찰』. 태학사, 2009.
- 이기문, 「‘아자비’와 ‘아즈미」. 『국어학』 12, 국어학회, 1983, 3-12쪽.
- 이승희,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국어국문학』 140, 2005, 253-276쪽.
- _____,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2007.
- _____, 『순원왕후의 한글편지』. 푸른역사, 2010.
- 장윤희,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교육』 제10집, 2009, 287-310쪽.
- 조항범, 『국어 친족 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1996.
- _____,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1998.
- 황문환, 『16, 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태학사, 2002.
- _____, 「근대국어 ‘ㅎ읍’체의 형성과정과 대우 성격」. 『국어학』 58, 2010, 29-60쪽.

국 문 요 약

최근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에 문법 위주였던 국어사 교육에서 더 나아가 국어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국어가 사용된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포함한 ‘국어생활사’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사 교육에서 언어적 변화와 함께 생활사의 문제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어사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거니와 이에 따라 최근의 개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한글편지를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글편지가 새로운 국어사 교육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고등학교 개정 『국어』 교과서의 한글편지 활용 상황을 살펴보고, 2009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어사 교육 내용에 따라 한글편지가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친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 특히 ‘아자바님, 아즈마님’, ‘아기’, ‘형’의 의미 변화, 둘째,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따른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의 차이, 셋째, 한글편지에 나타난 반복법, 생략법 등 전통적 수사와 인사말 등의 관용 표현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국어와 비교해봄으로써 언어의 변화와 전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투고일 2011. 3. 20.

수정일 2011. 5. 2.

게재 확정일 2011. 5. 13.

주제어(keyword) 한글편지(Hangeul letters), 국어사 교육(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친족(kin relationship), 호칭어(address terms), 지칭어(designative terms), 청자높임법(addressee-honorifics), 수사법(rhetoric), 관용 표현(idiomatc expression)